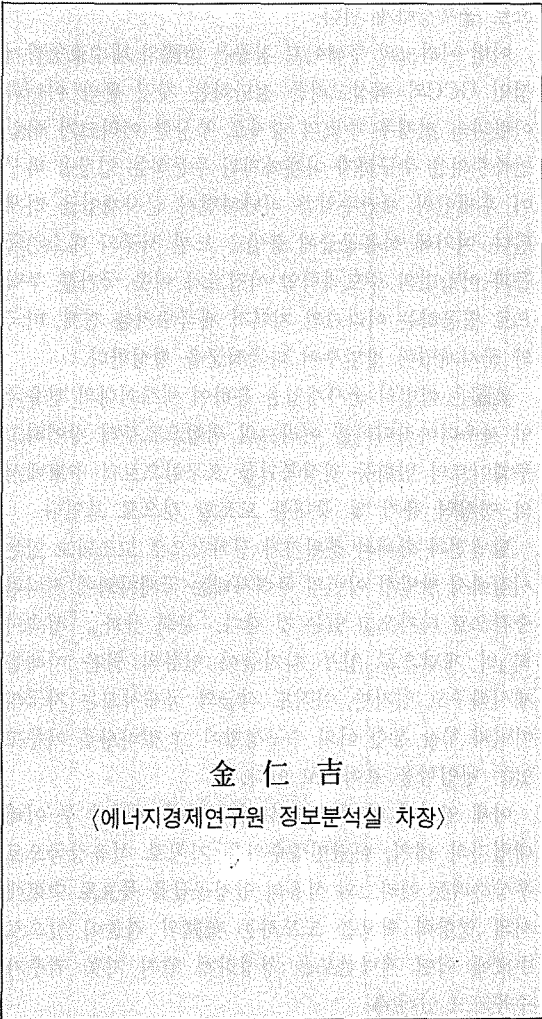


1. 항상 재발될 수 있는 中東정세

'89년 현재 전세계의 석유확인매장량은 1조118억배럴 인데 그 중 65.2%가 中東에 분포되어 있다. 또 세계 석유생산에서 차지하는 중동의 비중은 26.3%에 지나지

중동사태와 석유시장



金 仁 吉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분석실 차장)

않지만,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동석유의 비중은 52.7%나 된다. 석유수출통계증에는 공산권내의 수출·선진국간의 수출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계 석유시장에서 차지하는 중동의 절대적 위치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지역은 복잡한 정세가 얽혀 있어 언제든지 분쟁의 불씨가 다시 타오를 수 있고 그것은 곧바로 석유시장의 공급불안과 유가폭등, 경제타격으로 이어지게 된다. 중동지역에는 우선 이스라엘과 아랍의 숙명적인 민족대결이 지속되고 있다. 한때는 列強이 친이스라엘 對 친아랍으로 간접적 대결을 벌이기도 하였으나 요즘은 미·소 냉전의 종식으로 그 경향이 많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아랍권에는 「미국=친이스라엘=反아랍」이라는 反美감정이 팽배되어 있으며, 美國의 對이라크 전쟁이 자칫 확대되면 전면적인 中東戰爭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같은 아랍민족이지만 회교종파 차이에 따른 갈등도 심각하다. 이슬람교도중 90%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하여 수니파에 속해 있지만, 10% 정도의 시아파(이란)와 큰 종교적 갈등을 갖고 있다. '73~'74년에 발생된 제1차 석유위기가 이스라엘·아랍간의 민족충돌로 비롯된 것임에 비해, '79~'80년의 제2차 석유위기는 바로 회교종파간의 갈등으로 발발되었던 것이다. 호메이니의 이란 회교혁명, 즉 시아파의 세력확대를 막기 위해서 수니파인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가 이라크를 8년동안 지원한 것이 이란-이라크전쟁이었다.

다음, 아랍권에는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가 섞여

있어 빈부격차에 따른 불화도 대단하다.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등은 풍부한 석유자원,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어 풍족하게 지내는 한편,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예멘, 요르단, 이집트 등은 인구가 많거나 자원이 상대적으로 빈곤하고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부자 나라는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가 협조적이고(따라서 이스라엘과의 적대의식이 약하고), 석유가격 정책에 있어서도 급격한 인상에 반대하는 온건적인 입장이다. 이들 온건 국가들이 하나같이 土政체제인데 비해, 비교적 강경하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국가는 사회주의·회교주의·민주주의등 다양한 통치이념을 갖되 강력한 군사력과 리더쉽을 가진 국가원수가 존재한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함으로써 비롯된 이번의 중동사태가 바로 3번째 경우에 부합된다. 같은 아랍권내의 분쟁이면서도 10년전의 이란·이라크전쟁과 이번 전쟁은 여러 면에서 대조적이고, 어제의 우방이 오늘의 교전국으로 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중동정세는 여러 갈래의 갈등과 대립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명쾌하게 끝날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새로운 불씨가 재연될 수 있는 불안이 계속되는 것이다.

2. 과거 석유위기와 이번사태와의 비교

<表-2, 3>은 1, 2차 석유위기시의 시장상황을 정리한

것이며, <표-4>는 이번 사태와 과거와의 성격을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점령과 곧 이어 단행된 西方國의 對이라크 경제제재조치로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7월말에 배럴당 17달러이던 OPEC평균유가는 폭등을 거듭하여 8월 하순에는 25~30달러 범위에서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년 1/4분기에는 17.99달러 2/4분기에는 14.30달러에 불과했던 국제유가가 8월 22일에는 32달러를 넘어서는등 석유시장에는 제3의 파동에 관한 위기감이 감도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의 그것에 비해 지금의 상황은 여러 면에

<表-2> 제 1차 석유위기의 상황

	1972	1973	1974	1975
석유소비(백만B/D)				
선진국	36.9	39.7	37.8	36.6
개도국	7.0	7.6	8.0	8.0
자유세계	43.9	47.3	45.8	44.6
원유생산(백만B/D)				
OPEC	26.9	30.8	30.4	27.1
非OPEC	14.9	15.0	14.7	14.3
평균유가(\$/b)				
아라비아라이트공시가	2.48	3.06	10.89	10.72
유가상승률(%)	-	23.4	255.9	-1.6

<表-1> 중동전쟁의 성격

	이란-이라크 전쟁	이라크-쿠웨이트 전쟁
시기	1980. 9~1988. 7	1990. 8. 2
결과	- 승패불분명, 휴전	- 쿠웨이트 피점령, 쿠웨이트 망명정부(사우디)
성격	- 샤프트 알 아랍수로 쟁탈 - 회교종교전쟁(시아파-수니파)	- 후세인 패권주의 - 전후경제파탄에서의 탈피(국내불만해소, 외채탕감)
아랍권의 반응	- 이란의 회교혁명 방지를 위해 이라크지원(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 이란은 서방국가와의 관계악화로 고립(시리아만이 지원)	- 이라크 지원: PLO, 서방에 반감정을 가진 아랍민족 - 범아랍연합군의 결성, 이라크 고립 심화
서방국의 반응	- 중동 전면전쟁 확산 방지 차원에서 방관	- 경제제재, 다국적군 파견등 적극 대처

〈表-3〉 제2차 석유위기의 상황

	1978	1979	1980	1981	1982
석유소비(백만B/D)					
선진국	40.6	40.7	37.6	35.5	33.6
개도국	9.6	10.6	11.0	11.3	11.6
자유세계	50.2	51.3	48.6	46.8	45.2
원유생산(백만B/D)					
OPEC	30.3	31.5	27.4	23.4	19.9
非OPEC	18.6	19.8	20.5	21.1	22.2
평균유가(\$/b)					
아라비안라이트원유유가	13.00	29.89	35.69	34.30	31.76
유가상승률(%)		129.9	19.4	-3.9	-7.4

〈表-4〉 석유위기의 특징 및 성격 비교

	1차위기	2차위기	금 번
시 기	1973~74	1979~80	1990. 8~
원 인	이스라엘-이집트 전쟁 중동석유 공급삭감 단행	1. 이란회교혁명(79. 2) 이란 원유생산 2. 이란-이라크전쟁(80. 9)	1.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성 격	1. 자원내셔널리즘 팽배 (아랍권의 석유무기화)	1. 주요산유국의 사정으로 인한 공급장애발생	2. 이라크와 미국 등과의 무력충돌 위기 고조 1. 이라크 경제제재 조치 (이라크, 쿠웨이트 원유공 급 차질)
특 징	1. 일시적 수급불균형 (OPEC 원유생산 : 73년 - 3,083만B/D, 74년 - 3,044만B/D)	1. 공급장애 장기화 2. OPEC의 지나친 가격인상 3. 소비국의 비축 등 대응태세 미흡	1. 1, 2차 파동시는 공급 측면의 수급장애였으나 금번은 소비국의 금수조치 2. 전면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는 한 석유파동은 없을듯 3. 소비국의 비축풍부 (105일분)

서 위기극복상 유리한 점을 많이 갖추고 있다.

① 비수기에 발생 : 1, 2차 석유위기는 계절적 성수기인 4/4~1/4분기에 발생했으나, 이번은 여름철에 일어났다. 이번 사태가 없었다면 3/4분기 석유수급은 2/4분기의 공급과잉상태가 이어짐으로써 배럴당 16~18달러정도의 비교적 낮은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었었다.

② 소비국의 풍부한 석유비축 : 금년 6월말 현재의 자유세계 석유재고 및 비축물량은 상업재고가 43.3억배

럴, 정부비축이 11.8억배럴로서 합계 55.1억배럴에 달하여 이는 105일간 소비분에 해당한다. 특히 선진국의 육상석유비축물량은 '83년이래 최고수준인 100일분에 도달해 있다('73년 65일, '79년 80일 : 表-5 참조).

③ 소비국의 대비책 완비 : 제1차 석유위기는 소비국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산유국이 「석유무기화」 정책을 감행함으로써 소비국에 큰 당혹감과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1차 석유위기를 계기로 선진 21개국의 소비국단체인 IEA가 결성되었으며, 석유

〈表-5〉 선진국의 육상 석유비축 일수 (6월말 기준)

	1973	1974	1975	1978	1979	1980	1981	1984	1989	1990
민 간	65	87	87	77	72	92	92	76	67	70
정 부	-	-	-	2	8	10	13	23	29	30
計	65	87	87	79	80	102	105	99	96	100

의존도 감소, 석유대체에너지개발 촉진등의 장기 정책기반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선진국 경제성장은 1차 위기시 5% 포인트나 하락하였으나, 2차 위기시는 1.9% 하락에 불과, 상당한 충격흡수장치가 마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차 석유위기이후 천연가스·석탄등 대체에너지 이용이 촉진되었고 유가상승 내지 공급부족에 대비, 즉시 투입연료를 전환할 수 있는 多重燃料 연소시스템도 상당히 보급되어 있다. 그리고 에너지이용합리화정책도 경험·기술·제도면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과거 석유위기에 배울만한 또 한가지 교훈은 1, 2차 석유위기시 선진국의 석유비축관리미흡이 유가폭등을 가속화했다는 점이다. '74년과 '80년의 선진국 비축일수는 그 전년에 비해 22일씩 대폭 늘어났음을 〈表-5〉에서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가격급등시 가수요를 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④ 사태향방의 해결 주도권이 소비국에 있음 : 1, 2차 석유위기는 공급측면의 장애였는데 반해, 이번 사태는 ሁ이라크 경제제재조치로 소비국이 이라크·쿠웨이트

트 원유구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다. 협상국면으로 접어들거나 경제제재조치가 완화되면 수급은 즉시 원활해질 수 있고 유가도 하락·안정세를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소비국의 합리적 재고관리(즉 가수요 방지), IEA 및 美國의 전략석유방출은 시장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미국의 SPR은 5.9억배럴로서 최대 350만 b/d 까지 방출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향후 전망

8월 하순의 국제유가는 배럴당 25~30달러 사이에서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 향후 유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석유가격의 결정은 수급요인과 심리요인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별하기 위해 현재의 석유수급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ሁ이라크 경제제재조치로 수출중단된 원유물량은 모두 410만b/d이다(이라크 270만, 쿠웨이트 140만).

이러한 물량부족은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베네수엘라 등의 증산으로 어느 정도 보충은 될 수

〈表-6〉 중동사태이후 자유세계 석유수급 밸런스

	1989	1990				
		1/4	2/4	3/4	4/4	연 간
소 비	52.4	54.3	52.0	52.2	54.6	53.3
공 급	52.5	54.5	54.6	52.6	54.0	53.9
- OPEC 원유	21.7	23.7	23.5	22.1	23.5	23.2
- 非OPEC 공급	25.0	25.3	25.3	24.8	25.3	25.2
- 공산권 순수출	2.3	1.9	2.3	2.3	1.9	2.1
- NGL, 기타	3.6	3.6	3.6	3.4	3.3	3.5
재 고 변 동	+0.1	+0.1	+2.6	+0.4	-0.6	+0.6
운 영 육 상 재 고 (백 만 배 련)	3,060	3,018	3,241	3,276	3,225	
운 영 재 고 일 수	56	58	62	60	58	

〈表-7〉 중동사태 전후의 對OPEC원유 수급비교

(단위 : 백만B/D)

	3 / 4분기		4 / 4분기	
	사 태 전	사 태 후	사 태 전	사 태 후
석 유 소 비	52.4	52.2	55.5	54.6
OPEC원유생산	22.5	20.9	22.5~23.0	21.6
對OPEC원유수요				
정상적 재고유지	22.2	22.1	23.9	23.5
가수요발생시	-	23.3	-	24.8
OPEC원유공급부족				
정상적 재고유지	0.3과잉	1.2부족	0.9~1.4부족	1.9부족
가수요발생시		2.4부족	-	3.2부족

있으나 충분하지는 않다. 3/4분기에 250만b/d, 4/4분기에는 320만b/d의 물량이 보충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유세계 석유소비비는 이번 사태로 3/4분기에 20만b/d, 4/4분기에는 90만b/d정도 감소될 것이다. 종합해 보면 자유세계가 필요로 하는 OPEC 원유물량은 3/4분기에는 2,210만b/d, 4/4분기에는 2,350만b/d로 분석된다. 이것은 중동사태에도 불구하고 소비국이 정상적 재고관리를 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며, 「사재기」현상이 발생될 때는 이보다 120~130만b/d가 더 늘어나게 된다(表-6).

〈表-7〉은 중동사태 전후의 석유수급전망을 비교한 것이다. 이번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3/4분기에는 1일 30만배럴의 OPEC產 원유공급과잉이 발생했고 4/4분기에는 90만~140만b/d의 물량부족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수급전망은 중동사태 이전의 가격전망(3/4분기 16~18달러, 4/4분기 18~20달러)의 근거가 된다.

중동사태가 발생된 지금의 분석은 3/4분기에 120만~240만b/d의 물량부족, 4/4분기에는 190만~320만b/d의 물량부족이 발생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수급분석은 대치상황이 年末까지 지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앞으로의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석유수급과 심리적 요인이 크게 달라질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예상해 볼 수 있는 사태전개의 방향은 다음 5가지중 하나가 될 것이다.

〈시나리오 I : 이라크 내분발생〉

장기적인 경제재조치 속에서 이라크내분이 발생(실제 8월들어 후세인 암살이 시도된 바 있음)하여 후세인 대통령이 축출되는 경우이다. 중동에는 평화가 돌아오고, 쿠웨이트왕정도 복귀된다. 그러나 OPEC은 강경파와 온건파의 불협화음이 높아져서 OPEC쿼타준수가 잘 되지 않는다. 이 경우 국제유가는 금년 상반기의 약세 수준(13~17달러)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시나리오 II : 평화협상〉

당사국이 서로의 실리와 명분을 인정하면서 평화협상이 타결되는 경우이다. 이라크는 쿠웨이트에서 철군하되, 쿠웨이트에 對한 外債탕감 또는 부비안섬(쿠웨이트內 석유수출기지) 할양을 인정받음으로써 실리와 명분이 확보된다. 쿠웨이트의 주권회복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안보도 확립됨으로써 美國측의 파병목적도 상당한 성과를 거둔다. 이라크와 쿠웨이트는 원유수출을 재개한다. OPEC내에는 쿼타준수가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함으로써 쿼타준수가 엄격히 지켜질 것이다.

〈시나리오 III : 무력대치 지속〉

8월 현재의 사태가 지속되는 경우이다. 즉 對이라크 경제재조치와 해상봉쇄가 계속되고 이라크, 쿠웨이트 원유수출은 전면 중단상태이다. OPEC국가들은 부족물량을 채우기 위해 증산을 하고, 일부 소비국은 가수요(즉 비축일수를 늘림) 현상을 나타낸다. 한편, 아랍권일부에서는 反外勢 감정이 고조됨으로써 미국의 부담이 늘어난다.

<시나리오Ⅳ : 이라크-미국 전쟁발발>

美國과 이라크간의 무력충돌이 본격화된다. 단기간으로 美國이 승전한다. 이라크는 보복조치로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등의 석유생산시설에 손상을 가한다. 원유 수출감축규모는 더욱 확대됨으로써 공급부족이 300만~400만b/d로 심화된다.

<시나리오Ⅴ : 중동 전면전쟁으로 확산>

反美아랍 對 친이스라엘 西方의 대립으로 발전한다. 중동석유공급은 대규모 감축되고 제3차 석유위기가 발생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부족한 석유공급을 충당하기 위해 긴급석유용통제도를 발동시키고, 美國도 전략석유비축을 방출한다. 그래도 국제유가는 40~50달러로 폭등하여 상당기간 지속된다.

<시나리오Ⅰ>과 <시나리오Ⅴ>의 경우는 극단 상황으로서 그 발생가능성이 희박하다.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시나리오Ⅲ(대치상태)이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나리오Ⅱ(평화협상)로 진전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9/1일) 이라크는 협상의사를 여러 경로를 통해 나타내고 있고, 美國 또한 對이라크 무력행사를 자제하고 있다. 또한 케야르 UN사무총장(이란·이라크 종전협상을 성공시킨 바 있음),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 등이 중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치상태가 지속될 경우 국제유가는 9월중 배럴당 25~27달러 범위를 나타내다가 협상이 개시되지만 하연 크게 하락하여 배럴당 22~24달러까지 진정될 수 있을 것이다.

상황이 극단적으로 전개되지 않는 한, 내년도 OPEC 평균유가는 배럴당 22달러 내외가 될 것 같다. 이는 당초의 수급구조적 가격전망에 심리적 요인(2달러 정도)을 더 높인 것이다.

이번 사태가 석유시장에 주는 시사점은, ① OPEC 內 쿼타 및 가격정책이 경직성을 갖게됨으로써 구조적인 유가상승요인이 발생하리라는 점 : 가격인상과의 발언권이 강해지고, 쿼타준수가 국가안보와 직결될 수 있다는 압박감, ② 석유시장에는 불확실성이 상존함으로써 심리적 요인에 민감하게 작용하고 유가변동범위가 확대, ③ 소비국의 정부 및 민간의 에너지절약노력 확대 로 석유시장 환경변화가 초래된다는 것 등을 예상할 수 있다.

석유시장에서의 순간적인 판단은 곧바로 기업(특히 정유회사)의 손익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수지와도 직결된다. 따라서 석유시장(나아가서 대체에너지시장까지 확대하여) 동향을 파악하고 예상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는 정보관리의 중요성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로테르담, 런던, 뉴욕, 싱가포르에 석유현물시장 또는 先物市場이 개설되어 다양한 거래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공급확보와 가격안정이라는 두 가지 리스크관리를 최적화할 수 있을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란등은 극동지역에 대한 하류부문진출을 희망중이다. 이들 中東 産油國과의 협력은 석유의 장기안정공급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석유는 천연가스 또는 석탄 신연료(석탄가스, 액화 석탄, Orimulsion)와의 시장경쟁을 점점 더 치루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천연가스의 용도 다양화와 환경측면에서의 장점, 그리고 공급원활화가 이를 촉진할 것이다. 석탄연소기술의 향상과 공해방지기술이 본격 보급되면 이 역시 석유와의 경제성 정합이 심해질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 또한 정유회사의 장기과제중 하나이다.♣

(表-8) 시나리오별 유가전망

	수급요인	심리요인	예상유가
시나리오Ⅱ			
9월	\$ 0	\$ 4~5	\$21~22
4/4분기	3~4	2~3	22~24
시나리오Ⅲ-1 (정상수요 유지)			
9월	3~4	5~6	25~27
4/4분기	5~6	4~5	26~28
시나리오Ⅲ-2 (가수요 발생)			
9월	7~8	5~6	29~31
4/4분기	9~10	4~5	30~32
시나리오Ⅳ			
9월	13~14	3~4	33~35
4/4분기	11~12	2~3	30~32

※ 7월말 시장균형가격(\$17)에 대비한 상승분을 나타낸 것.